우리금융, 국내외 대대적 사회공헌활동 전개

내달까지 '함께여서 더 좋은 우리' 캠페인
총 26개국 462개 네트워크에서 실시

우리금융그룹은 금융의 사회적 가치 실현 차원에서 10월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우리은행 등 전 계열사에서 대대적인 국내외 사회공헌활동을 벌이는 '함께여서 더 좋은 우리'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우리금융그룹의 사회공헌 캠페인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전 계열사에서 동시에 실시하며, 국내는 물론 글로벌 총 26개국 462개 네트워크에서 오는 11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이 캠페인은 각 국가, 지역의 특색에 맞는 현지맞춤형 자원봉사활동을 자발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좋은 모범사례로 정착돼 가고 있다.

특히, 이 캠페인의 첫 번째 행사로 이날 서울 회현동 본점에서 '특성화고 디지털 인재 육성 프로젝트'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오지철 하트하트재단 이사장, 김연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등 주요인사가 참석했다. 특성화고 디지털 인재 육성 프로젝트는 프로그래밍 언어 학습을 위한 코딩교육 장학금 지원과 우리금융그룹 내 IT 전문기업인 우리에프아이에스 직원들의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가운데)이 오지철(왼쪽) 하트하트재단 이사장, 김연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금융그룹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이번 캠페인이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우리금융그룹은 금융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국민과 고객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금융그룹은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전달, 헌혈 캠페인 헌혈증 기부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강원도 산불 이재민 피해복구 기금 기부 등 재난재해 피해복구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CJ대한통운 봉사활동 누적 1만2500시간 돌파

CJ대한통운은 올해 들어 3·4분기까지 임직원들의 누적 봉사활동 시간이 1만2428시간을 넘어섰다고 10일 밝혔다. 이같은 추세면 올해 봉사활동 시간은 총 2만 시간을 돌파할 전망이다.

CJ대한통운 임직원 봉사활동은 2017년 이후 2년 연속으로 2만 시간을 넘어서 주목받았다. 올해 3분기까지의 기록인 누적 1만 2428시간을 하루 단위로 환산하면 515일, 1년 5개월에 달하며 봉사활동에 참여한 임직원 2375명이 평균 5시간 이상을 기록하는 유의미한 수치라는게 회사측 설명이다.

특히 10시간 이상 봉사활동에 함께한 임직원은 올해만 319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체 봉사왕 유력후보인 임직원 A씨는 휠체어 세척, 장보기 봉사활동, 숲가꾸기 등 올해만 6회에 걸쳐 31시간의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해 나눔을 몸소 전파하기도 했다.

CJ대한통운 신동휘 부사장(오른쪽)을 비롯한 임직원이 지난달 17일 경기도 광주 도평초등학교에서 아동들에게 안전우산을 나눠고 있다. /CJ대한통운

CJ대한통운은 지역공동체와 유기적 관계를 높이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초록창' 바꾼 '빨간창'

기자 수첩
김 나 인 〈산업부〉

짧은 휴가를 얻어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사전 정보를 얻고 싶어 포털 블로그 후기를 찾아봤다. 인위적 말투에 온통 칭찬 뿐이라 믿음이 가지 않아 주변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니 "유튜브를 보라"라는 조언이 들어왔다. 여행 정보 끝판왕부터 무계획으로 떠나기, 추천 이유, 꿀팁까지. 그야말로 없는 게 없었다. 초록창(네이버)이 아니라 빨간창(유튜브)이 대세라는 이유가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유튜브 대세는 수치로도 나타난다. 와이즈앱에 따르면 한국인의 유튜브 사용 시간은 1년 사이에 38% 증가해 카카오톡, 네이버를 뛰어넘었다.

우리가 유튜브를 스마트폰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유는 통신 사업자가 만든 인터넷망 때문이다. 유튜브가 자동차라면, 통신망은 고속도로다. 문제는, 이용자가 늘면 트래픽도 폭증한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인프라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트래픽을 유발하는 유튜브는 해외 기업이라는 이유로 이용료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 그보다 훨씬 적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국내 기업들은 연간 몇백억원에 달하는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

국내 사업자의 불만은 이번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터졌다. 한 콘텐츠 사업자는 "좋은 고속도로를 뚫어도 톨게이트비가 비싸면 아무 자동차도 달리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반면, 구글코리아 대표는 "통신사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네트워크에 막대한 투자를 해 오히려 비용을 절감할 기회를 준다"며 동문서답의 답변을 늘어놨다.

글로벌 동영상 시대에 이 같은 논쟁이 헛바퀴를 돌지 않으려면 그에 맞는 규칙을 세워야 한다.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경쟁의 장은 글로벌 단위로 넓어졌다. 더구나 5G 시대가 되면 더 큰 용량의 콘텐츠와 데이터가 망을 오가면서 이해관계 충돌은 더 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해외 사업자에 제대로 이용료도 받지 못하면서 비용 부담을 국내 사업자에게 충당한다는 볼멘 목소리들이 나오는 상황인데,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시대가 바뀌었으면 흐름에 맞게 기울어졌던 운동장을 다시 공정하게 마련해야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silkni@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0월 11일 (음 9월 13일)

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지는 잎을 보면 나를 보는 듯. **48년생** 주변이 어수선하니 언행에 주의하고 사람조심. **60년생** 골이 깊으면 산도 높은 법이니 절망은 금물. **72년생** 언쟁에 휘말리면 본전 찾기 힘들다. **84년생** 유혹이 많으니 마음을 굳건히.

소 **37년생** 자식은 도움을 줘도 당연한 권리로 생각. **49년생** 행복이 주변에 있으니 . **61년생**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조심. **73년생**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지출. **85년생**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니 겸손하게.

호랑이 **38년생** 죽순은 비가 오면 더 푸르러 지니 고난은 참고 견더라. **50년생** 현실에 만족하면 후회는 없다. **62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내지 마라. **74년생** 골치 아픈 일은 부모님과 상의. **86년생** 휴식이 없는 바쁜 하루여도 보람.

토끼 **39년생** 돌다리도 두드리고 아는 길도 물어 가라. **51년생** 내키지 않아도 웃어야 하는 날이니 좀 서글프다. **63년생** 아랫사람 말을 잘 경청. **75년생** 소금장사 나가는데 비 오는 격이니 매사에 조심. **87년생** 공과 사를 잘 살펴보라.

용 **40년생** 사방으로 운이 열렸으니 미뤄둔 일을 마무리. **52년생** 자식이 있어서 행복. **64년생** 지나간 인연이 찾아오니 갈등이 시작. **76년생** 가뭄에 단비가 내리니 흡족하다. **88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으니 희망을 찾자.

뱀 **41년생** 자식이 나보다 백배 낫다. **53년생** 자존감을 나를 지켜주는 힘. **65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도 좋으니 앞만 보고 전진. **77년생** 함께하는 상대를 의심하지 마라. **89년생** 당장 급여가 적어도 보람을 가져서 미래를 발전시켜라.

말 **42년생** 가족 간의 금전거래는 하지 마라. **54년생** 벌을 두려워하면 좋은 꿀을 얻지 못한다. **66년생** 인맥을 이용하여 유리한 정보를 얻게 된다. **78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마음 둘 곳을 모르고 방황. **90년생** 둘 중 하나는 양보해야.

양 **43년생** 검은 옷을 입을 일이 생긴다. **55년생** 마음은 별이라도 딸 것 같으나 자중. **67년생**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모르니 최선을 다하라. **79년생** 날개 없이 하늘을 나는 기분. **91년생** 능력이 없으면서 기대가 커서 실망도 크다.

원숭이 **44년생** 가까운 사람과의 불화를 조심. **56년생** 능력 이상의 일을 무난히 해결. **68년생** 예의 바른 행동이 나를 높여 준다. **80년생** 새로운 기회가 오니 올바른 판단력이 필요한 때. **92년생** 떠나기도 어렵고 머무르기도 어렵다.

닭 **45년생**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은 자식 사랑뿐. **57년생** 그물에 잡힌 물고기 신세처럼 답답. **69년생** 일취월장의 기회가 왔으니 힘껏 노력. **81년생** 눈에서 멀어지니 마음도 멀어진다. **93년생** 위기를 기회로 잘 이용 할 수 있다.

개 **46년생** 오랜 적선이 내게로 돌아온다. **58년생** 나의 특기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니 기쁘다. **70년생** 명예는 높아지나 실속은 그다지 없다. **82년생** 글을 읽음은 집을 일으키는 근본이라 했다. **94년생** 선택은 자유이나 책임은 따를 것.

돼지 **47년생** 표리부동(表裏不同)은 결국에 내 흠도 드러난다. **59년생**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마라. **71년생** 발로 뛰는 일을 찾아라. **83년생** 명상을 하며 편안한 시간을 가져보자. **95년생** 바람이 불어도 정당한 기본은 흔들리지 마라.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4		2			
		5				3		
	7		6		8		9	
1		3				2		4
				6				
7		9				6		8
	5		3		4		8	
		4				9		
2			7		9			

	6						5	
1		5				9		4
2		1				8		9
	3		2		4		7	
				3				
4			1		6			7
3			5		8			6
	9			7			2	

스도쿠 정답

6	9	1	4	3	2	8	7	5
4	8	5	9	7	1	3	6	2
3	7	2	6	5	8	4	9	1
1	6	3	8	9	7	2	5	4
5	4	8	2	6	3	7	1	9
7	2	9	1	4	5	6	3	8
9	5	7	3	2	4	1	8	6
8	3	4	5	1	6	9	2	7
2	1	6	7	8	9	5	4	3

9	8	4	6	5	2	7	1	3
7	6	3	9	4	1	2	5	8
1	2	5	3	8	7	9	6	4
2	4	1	7	6	5	8	3	9
8	3	9	2	1	4	6	7	5
5	7	6	8	3	9	1	4	2
4	5	2	1	9	6	3	8	7
3	1	7	5	2	8	4	9	6
6	9	8	4	7	3	5	2	1

문제 제공= 보누스

김상회의 四季

화로 인해 다른 화를 입는다면

인간은 탐진치(貪瞋痴) 삼독으로 인해 끝임 없이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인간들이나 동물들이 살아가는 이 지구의 삶은 일찍이 사바세계(娑婆世界) 중에서도 욕계라 하여 탐진치라는 세 가지 독(毒)의 번뇌를 겪어내야 한다.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오온(五蘊)으로 비롯되는 고통을 참고 살아야 하는 세계를 말한다. '사바'라는 말은 인도의 고대어인 산스크리트어에서 유래한다. 번뇌와 고통을 참아내야 하는 세계라는 뜻이다.

보살의 입장에서는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수고를 참고 견디어 내야 하는 세계가 된다. 그런 까닭으로 불교에서는 사바세계에 사는 중생들의 수행 방법으로 인욕을 으뜸으로 꼽는다. 어느 날 어떤 이가 이웃이나 가족의 불화로 불을 붙이고 자신도 화상을 입어 유명을 달리하는 사람의 뉴스를 본다. 가슴이 미어진다. 어떤 일이든 화를 낼만한 일에 화를 내는 것은 당연히 여기지만 불가에서는 다른 각도로 보고 있다. 모든 재앙과 액화의 원인인 화를 내는 것 자체를 독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화의 원인을 가만히 따져보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나오는 감정이다.

또한 화를 내더라도 그 화가 제2 제3의 부정적인 결과를 몰고 온다고 보기에 화가 올라올 때 한 발자국 떨어져서 호흡을 가다듬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화를 내는 것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화의 본질은 제2 제3의 화살을 맞는 것과 다름이 없다. 화로 인해 또 다른 화를 입으니 지혜로운 일은 아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집인 편집국장 이 장 규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298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402호